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5

방송과기술 9월호에 실을 원고를 쓰는 지금은 8월 초입니다. 초강력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생활리듬이 작두를 타서인지 낮에는 졸다 깨는 사이사이 자꾸 꿈같은 헛것이 보이고, 밤에는 빈대떡 부치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다 현기증에 침대와 온 우주가 C군 몸 주위를 김밥처럼 돌돌 마는 것 같은 초자연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정신줄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전 국민의 무한사랑 에어컨과 함께하는 시간뿐이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에 누진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맘껏 풀가동 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만큼이나 큰 맥락 없이 귓가에 메아리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너무 더워서 차라리 춥고 싶은 기분 말고는 아무 연결고리 없이 귓가에 울린 철 지난 유행가 가사에 뜬금포 자백모드 발동하여 '킬리만자로의 표범' 절정의 독백 파트를 에스프레소보다 더 진한 쓸쓸함 가득 담아 가슴 시리게 읊조리는 단계로 2차 유체이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 본 이 독백 가사에 웬지 진짜로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하는 것 같아 심장은 뜨겁게 핏빛으로 요동치고, 저 태양을 휘감은 화염보다 더 슬프게 몸부림치는 비장미 속으로 흠뻑 빠져듭니다. 더위에 정신줄 놓고 착각과 망상이 던져준 이 숭고한 감정에 고조되어 '적도'의 태양과 맞서도 풀리지 않을 담대함을 영혼에 꼭꼭 눌러 담아 이달의 영단어 어원탐구는 '적도'로 시작하겠습니다.

equator

어원 : 라틴어 aequare(make eq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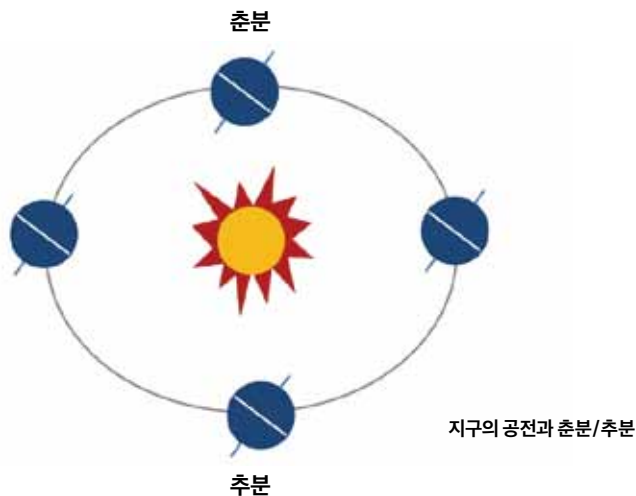
모두 아시겠지만 '적도'는 영어로 'equator'입니다. '갈게 만들다(make equal)'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equare가 어원이라고 C군이 적어놓았지만, 사실 수학을 배우며 자주 접한 '이꼬르(equal)'라는 영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형태도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라틴어 어원 따위가 없어도 쉽게 의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equator'의 라틴어 어원이 'make equal'의 의미라면 뭔가를 갈게 한다는 것인데 '적도'가 뭘 갈게 한다는 걸까요? 바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의미로 적도를 'equato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남미국가 중

에 에콰도르(Ecuador)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적도가 나라를 관통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스페인어 ecuador와 영어 equator가 꽤 닮아보이지요? 하나의 라틴어 어원에서 나왔으니 닮아 있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적도', '낮과 밤의 길이' 등을 이야기하다 보니 예전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던 '지구과학' 생각이 납니다. '지구과학'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김에 '지구과학'스러운 영단어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equinox

어원 : 라틴어 aequus(equal) + nox(night)

'춘분 또는 추분'을 나타내는 'equinox'라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 어원을 보면 '같다'는 뜻의 'aequus'와 '밤'이라는 뜻의 'nox'가 합쳐진 것입니다. '밤이 같다'는 뜻 정도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을 위해 [그림 1]을 보겠습니다. [그림 1]은 지구의 공전과 태양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의 중심에 있는 것이 태양이고, 파란 원은 지구를 나타냅니다. 지구를 꿰뚫는 기울어진 파란 선은 지구의 자전축이며, 지구의 자전축을 수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하얀 선이 적도입니다. [그림 1]의 춘분과 추분을 보면 태양이 적도를 똑바로 비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을 '밤이 (낮과 길이가) 같다'는 의미의 'equinox'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equinox'를 설명하며 '밤'을 뜻하는 라틴어 'nox'가 나온 김에 잠시 밤과 관련된 친숙한 영단어 하나 서비스(?)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학창시절에 실내조화를 하면 가끔 명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며 눈감고 명 때리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틀어주던 음악들이 대부분 'nocturne(야상곡)' 계열의 음악들이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야상곡 = 밤의 정서를 나타내는 서정적 피아노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상곡'이라는 뜻의 'nocturne'의 어원은 라틴어로 '밤에 관한~' 정도의 뜻을 가진 'nocturnus'입니다. 앞서 설명된 'equinox'의 'nox'와 'nocturne'의 어원 'nocturnus'의 앞부분 'noc~'가 닮지 않았나요?

nocturne

어원 : 라틴어 nocturnus (of the night)

잠시 야상곡에 대한 설명으로 주의를 환기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equator', 'equinox'의 'equi~'로 이어지는 영단어들의 어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얼버무리기' 정도의 뜻을 가진 'equivocation'이라는 영단어가 있습니다.

equivocation

어원 : 라틴어 aequus(equal) + vocare(to call)

‘equivocation’은 라틴어로 ‘같다’라는 뜻의 ‘aequus’와 ‘부르다’는 뜻의 ‘vocare’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원으로부터 대충 뜻을 추측해보면 ‘~를 같게 부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저런 사실들이 있는데, 이들을 같게 부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저런 것들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게 부르니 이것이 결국 ‘얼버무리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C군은 추측해 봅니다. C군은 본인의 추측이 너무 앞뒤가 없는 추측은 아니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니 대충 봤을 때 큰 오류가 없어 보이면 믿고 넘어가시는 것도 무더위 정서적 안정에 좋을 것 같습니다. ‘equivocation = 얼버무리다’ 접수되었습니다?

equivocate

equivocation의 동사형

여기서 참고로 가벼운 서비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얼버무리기’라는 명사 ‘equivocation’을 알았으니, ‘얼버무리다’는 동사도 하나 더 건지면 좋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equivocate’가 바로 ‘얼버무리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equivocation’을 보면 어딘가 친숙한 단어 ‘vocation’이 눈에 들어옵니다. ‘vocation’은 ‘천직이나 소명’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vocation

어원 : 라틴어 vocare(to call)

그런데 ‘천직이나 소명’이 ‘부르다’는 뜻의 라틴어 어원 vocare와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영어시간에 영어 선생님께서 ‘vocation’은 ‘신의 부름’을 나타내고 ‘천직이나 소명’이 결국 ‘신의 부름’이기 때문에 ‘vocation’이 ‘천직이나 소명’이 된다고 설명하셨을 겁니다. 영어 선생님의 그 말이 진짜였던 것이 지금 어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독자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뭐 소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추억의 한 페이지를 라틴어 어원을 통해 새로이 펼쳐 보는 것이 뭔가 아련합니다.

잠시 옆길로 빠져서 ‘vocation’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역시나 다시 ‘equi~’ 시리즈로 돌아와서 ‘동등한, 맞먹는’ 정도의 뜻을 가진 ‘equivalent’라는 영단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equivalent’의 라틴어 어원은 ‘같다’라는 뜻의 ‘aequus’와 ‘~가치가 있다’는 뜻의 ‘valere’입니다. ‘equivalent’는 말 그대로 ‘같은 가치가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므로 ‘동등한, 맞먹는’이 됩니다.

equivalent

어원 : 라틴어 aequus(equal) + valere(be worth)

그런데 역시나 라틴어 ‘valere’(be worth)가 또 옆길로 유인입니다. 웬지 ‘valere’가 영어의 ‘value’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value

어원 : 라틴어 valere(be worth)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영단어 'value'의 어원도 'valere'입니다. 'valere'를 사이에 두고 'equivalent'와 'value'가 연결이 되니 훨씬 어원에 의한 단어들의 연결이 친숙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equi~'와 관련된 영단어를 설명하다 옆길로 새고,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우시더라도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해를 돕기 위한 C군의 정성으로 생각하고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시나 다시 옆길에서 돌아와서 '평형상태'를 나타내는 영단어 'equilibrium'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equilibrium'의 라틴어 어원은 '같다'라는 뜻의 'aequus'와 '균형, 저울' 등의 뜻을 지닌 'libra'입니다. 어원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의미를 결합하여 '같은 균형' 정도로 추측하면 '평형상태'라는 의미가 선뜻 형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건전한 추리가 살짝 가미되어야 합니다. C군의 건전한 추리로는 복수의 대상들이 '같은' 비중이나 중요도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 'equilibrium'의 어원인 aequus(equal) + libra(a balance, etc)가 아닌가 합니다. 같은' 비중이나 중요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 '평형상태'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equilibrium

어원 : 라틴어 aequus(equal) + libra(a balance, etc)

또다시 옆길로 조금 새서 'equilibrium'의 어원을 이루는 'libra'에 대해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libra'는 매우 생소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친숙한 대상입니다. 중량 단위인 파운드를 표시하는 lb가 바로 'libra'입니다. 그리고 별자리 중에 천칭자리를 'libr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본래 가지던 뜻인 '균형, 저울' 등의 중심의미로부터 현대의 뜻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이제 'libra'가 조금은 친숙해지지 않았나요?

libra

중량단위 (lb, 파운드), 천칭자리

이번 호도 더위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진도를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짹짹 정진하여 언젠가는 독자 여러분과 C군 모두 사전 없이 영문으로 된 시사주간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 날을 상상해봅니다.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